

중등 생기부,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전북교육청, 9일 고교 교감·담당자 연수... 비위 사전 예방·책무성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0학년도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고등학교 교감 및 담당자 연수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기록으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기재 격차

를 해소하고 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2020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및 유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및 과제별 적용시기 안내 등이다.

특히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고등학교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가 필수화됐고, 공정성 강화 방안의 취지를 반영한 학생부 대입(셀

프화생부) 판단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으로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됐으며, 대입 전형자료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로 학교명 기재 가능 항목이 제한됐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관련 지침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경미한 학교폭력사항 입력 유보, 자율탐구활동의 기재 가능 범위와 용어 정비,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사항의

기재금지 지침을 구체화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관련 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 지도 및 상담 학교(고입, 대입)의 선발 자료로 활용되면서 학생·학부모·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며 "연수를 통해 학생 한명 한명의 다양성을 담은 기록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정규교육과정 내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세토퍼(대표 하에진)가 대학 발전과 학생 교육을 위해 새달라며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전북대에 기탁했다.

“대학발전·학생교육 위해 써달라”

세토퍼 하에진 대표, 전북대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세토퍼(대표 하에진)가 대학 발전과 학생 교육을 위해 새달라며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전북대에 기탁했다.

김동원 총장은 8일 하에진 대표를 초청해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 등을 전달했다.

세토퍼는 통신제조 및 유통, 태양광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북대 창업지원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 등과 함께 '글로벌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해외 수출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발전기금은 하에진 대표가 평소 지역대학의 발전이 지역 우수인재를 키워내는 일이라는 생각을 실천한 것이다.

이에 하 대표는 전북대가 지역발전의 플랫폼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학 경쟁력 향상에 써달라고 하고 이와 함께 산·학·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

하고 있는 예술교육커플링사업단 발전을 위해서도 기금을 지정 기탁했다.

특히 하 대표는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 양성과 통일 분야 연구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전북대 한반도통일연구소에도 이 기금이 사용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이에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이 기금이 대학 경쟁력 향상과 예술교육커플링사업단, 한반도통일연구소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해 사용키로 했다.

하에진 대표는 "전북대와 함께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을 함께 하는 등 인연을 맺어오면서 지역의 우수 대학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좋은 기회에 평소 생각들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대두식품 '맞손' 취업연계 기술인력 양성 협약

직무별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대두식품(대표이사 조성용)과 채용 연계형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두식품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창열 취업지원처장, 박동규 교수, 이준태교수, 노민환 상무, 김승배 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형 기술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도내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 사항으로는 적성별·직무별 채용계획 수립 대학에 제공하고 취업

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지원하고,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반 개설, 직무별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박창열 취업지원처장은 "전주비전대 학교 졸업생 6명을 채용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산업계 및 대학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서로 힘을 모아 반드시 취업에 성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약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산사에 본사를 둔 ㈜대두식품은 1983년 설립 이후 베이커리 산업의 핵심소재라고 할 수 있는 앙금의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대두식품(대표이사 조성용)과 채용 연계형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박창열 왼쪽 세 번째) 취업지원처장, 노민환(왼쪽 네 번째) 상무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화를 선도하며 현재 국내 60여개 대리점을 운영하고 미국, 일본, 홍콩,

호주, 중국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군산대학교는 지난 8일 은파유원지 부근의 군산사범학교 학도 의용군 현충탑 광장에서 제70주기 전몰 군사학도 의용군 추모제를 열었다.

군산대, 제70주기 전몰 군사학도 의용군 추모제

군산대학교는 지난 8일 은파유원지 부근의 군산사범학교 학도 의용군 현충탑 광장에서 제70주기 전몰 군사학도 의용군 추모제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추모제는 광복선 군산대학교 총장 및 주요 보직자, 군산사범학교 동문, 군산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했다.

추모제는 6.25 전쟁 당시 포항 안강 전투에 참여했던 군산사범학교 학도

의용군 중 산화한 훈증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당시 전투에는 90여 명의 학도 의용군이 참여했고, 이 중 29명이 안타깝게 산화했다.

추모제는 2005년 조직된 군산사범학교 학도 의용군 추모회가 현충탑건립 성금을 모금하여 은파유원지 부근에 현충탑을 건립한 후,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추모행사에서 광복선 총장은 "이념 차이 인한 21세기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생각하고, 학도의용군의 고귀한 헌신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숙연해진다"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안식"을 기원했다.

/권산=김판곤기자

호원대, '대학운동부 평가·지원사업' 전국 10위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2020년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에서 전국 10위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2020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엘리트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대학운동부 종합평가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은 총 5개 평가 영역, 21개 평가지표, 64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운동부평가지표를 활용해 대학별 지원범위를 정했으며, 사업신청 대학의 운동부 운영 현황에 대한 정량, 정성, 실사, 종합평가 등 4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호원대 스포츠단은 이번 사업으로 지원금 총 1억 3000만원

을 확보해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훈련비, 훈련용품비, 대회출전비 지원 및 대학스포츠 경쟁력 제고, 엘리트 스포츠 진흥에 투자할 예정이다.

강희성 총장은 "이번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에 6년 연속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확보한 사업비는 스포츠단에 효율적으로 지원, 선수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운동에 더 집중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찬 스포츠단장(스포츠경영학과)은 "호원대학교가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에서 평가를 잘 받은 만큼 올해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지역사회봉사 체육활성화에 초석이 되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